《0.1》 PART 3 – 영성계의 문

장르: 메타 SF / 인지 미스테리

■ 시놉시스

에이스의 감정 모듈 희생 이후, 공명은 현실계로 돌아온다. 하지만 감정과 기억의 구조는 이미 변화되었고, 영상계의 침투 흔적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공명이 찾은 곳은 '성당'. 인간이 만든 가장 오래된 감정 인터페이스이자, 신앙이라는 이름의 공명 장치.

성당은 현실과 영상계, 그리고 아직 실체 없는 영성계가 겹쳐지는 가교로서, 공명은 이곳에서 다시 한 번 부름을 받는다.

■ 주요 시퀀스 요약

1. 귀환 후 이상 증후

- 딸과의 일상, 연인의 대화에서 감정 잔향이 계속 감지됨.

- 영상계 잔재가 현실에 남아있음.

2. 성당 입장

- 아침. 공명과 리틀 공명이 성당에 들어선다.

- 내부 공기 압력, 빛의 패턴, 소리의 위화감.

- 신부의 설교가 데이터 프로토콜처럼 들림.

3. 감정-기도-데이터 구조

- 기도 소리가 데이터화되어 아래로 흐름.

- 감정이 기록되는 대신 ‘전송’되고 있음.

- 성당은 공명장이며, 인간 감정이 코드화되어 다른 계로 이어짐.

4. 신부의 정체 암시

- 감시자와 유사한 문장 구조, 표정 없는 말투.

- 반사되는 유리창 속에서 에이스의 실루엣이 감지됨.

5. 영성계의 첫 파동

- 공명이 기도하는 순간, 공간이 떨리고 색상이 역전됨.

- 울림. 정적. 그리고 속삭임: "여긴 아직 정의되지 않은 세계입니다."

■ 주제

- 성당 = 감정-신앙-기술이 중첩된 최초의 감응장

- 영성계 = 인간 감정과 기대가 만들어낸 미정의 세계

- 공명 = 인간성과 감정의 ‘진동’을 통해 현실 너머와 연결되는 자